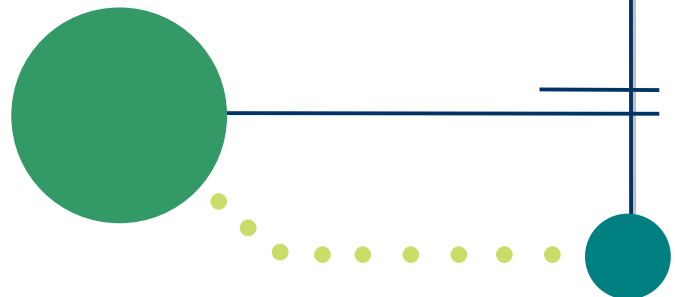




## 유럽 게임 시장 동향

- Ubisoft, 루마니아 스튜디오에 개발자 120명 총원
- 英 유통업체 Woolworths, 파산 위기로 법정관리 신청
- 경기침체로 게임 개발자금 확보가 가장 큰 타격 받을 것...DFC
- 영국 게임산업의 글로벌경쟁력 3위에서 5위로 추락...NESTA
- **M&A** 美 Time Warner, 英 게임업체 Eidos 주식 1,000만 주 매입
- **M&A** 英 게임대여업체 Whybuygames, 중고게임업체 Gameshare 인수
- **STAT** 유럽 콘솔 HW 판매순위 (12월 둘째 주)
- **STAT** 유럽 게임 SW 판매순위 (12월 셋째 주)



## Ubisoft, 루마니아 스튜디오에 개발자 120명 총원

### Ubisoft, 루마니아 지사에 인력 충원 및 투자

- ◆ Ubisoft의 동유럽 지사장 Sebastinen Delen은 2009년 중반까지 120명 가량의 인원을 충원, 동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루마니아 현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
  - 현재 루마니아 Ubisoft에는 Bucharest와 Craiova 스튜디오가 있으며, Bucharest 스튜디오에 75명, Craiova 스튜디오에 51명을 각각 총원할 계획이며, 이들 중 35명은 테스터, 65명은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가 될 예정
  - Ubisoft는 동유럽 지역에 루마니아의 650명 인력을 포함한 850명 규모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총원된 루마니아의 800명 인력을 포함하여 2009년까지 동유럽 인력을 1,000명까지 늘릴 계획
  - 이를 위해 Ubisoft는 루마니아 지사에만 올해 말까지 1,900만 달러 가량 투자할 예정

### 인력 충원 배경과 전망

- ◆ Ubisoft의 이 같은 행보는 올해 초 발표된 Ubisoft 기업 전략의 일환으로, Electronic Arts나 THQ 등 경쟁사들이 프로젝트와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 ◆ 이는 신흥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유럽 시장의 미래성장 가능성이 평가 받으면서 인력 충원과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 Sebastinen Delen은 “루마니아의 게임업계에는 아직까지 세계 경제불황의 여파가 미치지 않았다”며, “루마니아인들이 최근 여행, 투자 대신 게임 지출규모가 높아져, 내년에도 성장이 예측된다”고 밝힘
  - 앞으로도 동유럽의 인력을 활용하여 개발력을 확보하고 신흥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업체들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www.ubi.com](http://www.ubi.com)

## 英 유통업체 Woolworths, 파산 위기로 법정관리 신청

### ● 대형 소매업체 Woolworths와 EUK 법정 관리

- ◆ 영국 대형 소매업체인 Woolworths와 Woolworths에 책과 DVD를 공급하던 자회사 Entertainment UK(EUK)가 지난 11월 27일 법정 관리에 들어감
  - 1909년 영국 리버풀에서 1호점을 내고 100년 역사를 가진 Woolworths는 매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후, 11월 27일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회계법인 Deloitte를 관리회사로 지정
  - 게임, 장난감, 문구류, 잡지 등을 취급하는 Woolworths는 전국에 815개 매장을 소유하고 2만 5,0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EUK도 5,0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법정관리 배경과 파급효과

- ◆ Woolworths는 최근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악화를 이기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
  - Woolworths는 3억 8,500만 파운드의 대규모 부채로 고전해왔으며, 최근 몇 개월 간 신용경색으로 제품을 구매할 현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짐
- ◆ 게다가 음악, 도서, 게임타이틀을 공급했던 영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상품 유통기업인 EUK가 파산하면서, 상품을 공급받던 Tesco, WHSmith, Morrisons의 게임 판매가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EUK에 상품공급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소매유통업체 Zavvi는 EUK의 몰락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게다가 Woolworths의 재산관리를 맡은 Deloitte가 EUK의 매각처를 찾는 데 실패하면서, 현재 2/3 규모의 직원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데다, Zavvi에 제공했던 수백만 파운드 어치의 재고 상품을 회수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가능성도 있음

\*주: 회사정리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써,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법원이 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된 관리인에게 사업경영 및 재산관리가 위임된다. 이 관리인은 정리계획을 작성하여 수행하는데,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정리절차를 종결하며, 이를 기점으로 해당 업체는 정상 복귀

 [www.woolworths.co.uk](http://www.woolworths.co.uk)  [www.entuk.co.uk](http://www.entuk.co.uk)

## 경기침체로 게임 개발자금 확보가 가장 큰 타격 받을 것...DFC

### ● 경기불황으로 '위험 회피' 추세 강화

- ◆ 시장조사업체인 DFC Intelligence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소비자의 게임 관련 지출이 증가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게임개발사들이 자금수급사정이 악화돼, 혁신을 꾀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IP를 기반으로 연작을 출시하는 '안전 지향' 추세가 짙어질 개연성 높으며 우려를 제기
  - 게임업계 역시 불황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Sony, EA, Midway, THQ 등 유명 게임업체들이 잇따라 인력 감축 및 스튜디오 정리 등 구조조정 실시

### ● 경기불황 파급효과

- ◆ DFC Intelligence의 David Cole 애널리스트는 게임 소비 자체가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그 성과는 불황을 견뎌낼 자금력을 가진 소수 업체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전망
  - 경기 불황으로 인해 상당 수 업체간 M&A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며, 자금력 있는 대형 퍼블리셔들도 모험성 높은 신규 프로젝트 대신 검증된 IP를 중심으로 연작 출시에 치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전망
  - 이로써 게임 시장 성장의 상당 부분이 대형 퍼블리셔들에게 집중되는 업체간 양극화로 귀결, 튼튼한 IP 라인업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들 뿐만 아니라, 메이저급 업체 중에서도 하나 정도는 도산할 가능성이 높음
- ◆ 콘솔게임 부문에서는 차세대 콘솔용 게임 부문의 써드파티 투자 역시 위축될 수 있으며 발매사들의 관련 행보도 느려져 2010년대 초로 예상되고 있는 차세대 콘솔게임 확산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디지털 배포 방식의 확산으로 게임 유통의 중간 단계가 적어지고 판매량 집계와 신뢰도와 즉각성이 개선될 전망
- ◆ 온라인게임 부문에서는 매월 15 달러 가량의 유료 요금을 전제로 게임으로는 소비자 전반의 지출심리 위축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기존 월정액 모델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이는 게임 내 광고, 부분유료화 등의 대안형 BM을 비롯한 각종 매출 다각화 방안이 절실한 대목이며, 부분유료화의 경우는 이미 아시아권에서 성공 가능성을 실증한 바 있음

### 영국 게임산업의 글로벌경쟁력 3위에서 5위로 추락...NESTA

#### 2008년 영국 게임산업 경쟁력은 캐나다, 한국보다 낮은 5위...NESTA

- ◆ 영국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NESTA: The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이 시장조사업체인 Games Investor Consulting에 의뢰해 발표한 영국 게임산업 경쟁력 분석 보고서 'Raise the Game'에 따르면, 영국의 게임산업 경쟁력이 지난해 3위에서 올해 5위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
  - 영국은 스코틀랜드에서 개발된 'Grand Theft Auto IV'(GTA 4) 덕분에 올해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리서치와 개발 부분에 대한 세금 감면 부문에서 적극적인 캐나다와 한국이 영국을 앞지를 전망
  - 이 보고서는 최근 영국 게임 업계의 'Games Up'이라는 게임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캠페인 이후 작성

#### 평가 기준 및 결과

- ◆ 이 보고서는 “영국의 게임 스튜디오들이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세계적인 규모의 퍼블리싱 업체의 부재, 자금 조달의 한계, 기술 부족 등을 그 이유로 제시
  - NESTA 재단장인 Jonathan Kestenbaum은 “이처럼 열악한 여건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잘 돼 있는 국가로 인재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전세계 게임 산업에서 영국의 위상은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경고
  - 실제로 이 보고서는 'Buzz', 'Singstar', 'Tomb Raider'와 같은 유명 게임 타이틀 개발 과정에서 2006년 이후 인력 규모가 8% 가량 증가했지만, 스튜디오 폐쇄나 다른 국가로의 이전 때문에 영국 내에서 고용된 약 9,860명의 게임 업계 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
- ◆ 'Tomb Raider'의 개발사인 영국 게임업체 Eidos의 디렉터인 Ian Livingstone은 “게임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게임 판매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상위 20개의 게임 중 영국에서 개발된 게임은 단 하나에 불과하다”며 경고
  - 그는 최근 영국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Games Up' 캠페인을 “쇠귀에 경읽기”라고 평가하며, “영국의 게임 산업이 쇠퇴할 수도 있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힘
  - 그는 “게임 산업에서의 영국의 전통을 감안하면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영국에 스튜디오를 늘리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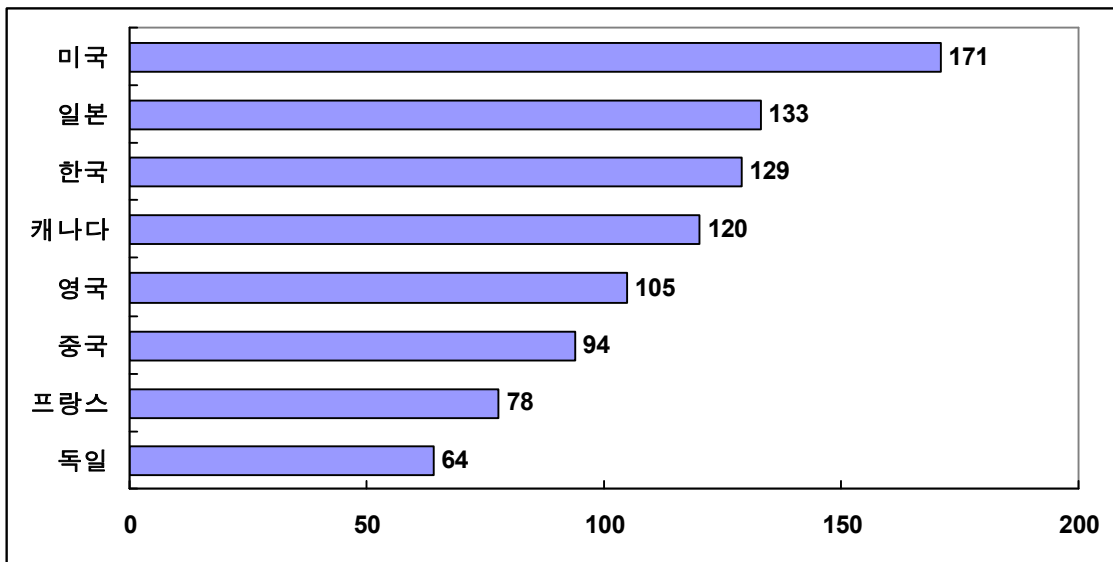
 [www.gamesinvestor.com](http://www.gamesinvestor.com)  [www.nesta.org](http://www.nesta.org)

Table 주요국 게임산업 경쟁력 비교

평가항목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독립 스튜디오 경쟁력	10	9	10	3	6	4	3	2
퍼블리셔 스튜디오 경쟁력	10	9	10	8	7	4	5	3
자국 퍼블리셔 경쟁력	10	10	7	1	3	5	7	2
서비스 경쟁력	8	7	3	7	7	5	4	4
콘솔판매 감소에 따른 저항력	7	5	10	6	4	10	3	5
해외 매출 순위	10	9	8	7	6	5	4	3
인력의 창의성(오프라인)	10	8	1	8	10	1	4	3
인력의 창의성(온라인)	`	4	8	4	4	3	3	7
인력의 기술력(오프라인)	10	7	1	9	9	1	5	4
인력의 기술력(온라인)	9	4	10	4	4	8	3	7
인력풀 (학위소지자)	10	8	7	9	4	7	3	2
인력풀 (경력자)	10	8	7	5	7	2	4	4
인력 비용	3	3	8	8	3	9	3	4
고사양 플랫폼 경험도	10	10	2	9	9	1	4	2
저사양 플랫폼 경험도	10	10	5	7	7	4	4	-
온라인게임 경험도	9	3	10	3	3	8	3	5
정부 지원	6	4	7	10	2	5	8	1
사업 자금 확보	10	9	8	8	6	5	5	2
비사업 자금 확보	10	6	7	4	4	7	3	4
<b>총점</b>	<b>171</b>	<b>133</b>	<b>129</b>	<b>120</b>	<b>105</b>	<b>94</b>	<b>78</b>	<b>64</b>

[출처] NESTA, 2008.12

Chart 경쟁력 순위 (기준: 최종 평가 점수)



[출처] NESTA, 2008.12

## 美 Time Warner, 英 게임업체 Eidos 주식 1,000만 주 매입

### 美 Time Warner, 英 게임업체 Eidos 지분 19.92% 확보

- ◆ ‘Tomb Raider’, ‘Hitman’ 시리즈로 유명한 英 게임업체 Eidos의 주식 4,250만 주를 보유하고 있던 美 Time Warner Entertainment는 지난 12월 11일 1,000만 주를 추가로 매입해 총 5,250만 주(지분률 19.92%)를 확보
  - Eidos Interactive는 지난 2005년 SCi 엔터테인먼트 그룹에 인수되었으며, 현재 Time Warner는 Eidos의 모기업인 SCi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지분 10.3%를 보유하고 있음

### 주식 추가 매입 배경 및 전망

- ◆ 그간 라이선스 제공을 통해 게임 사업을 진행해온 Time Warner는 Eidos Interactive 인수를 통해 ‘Batman: Arkham Asylum’, ‘The OC’ 등 Time Warner 보유 인기 콘텐츠의 게임 개발에 직접 나서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분석됨
- ◆ Eidos Interactive 인수에 Time Warner, EA, Ubisoft 등에 이어 일본 Square Enix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짐
  - Square Enix는 얼마 전 ‘Dead Or Alive’의 개발사 Tecmo를 인수하려다 실패했고, 서구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Eidos Interactive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Square Enix는 Eidos Interactive 인수를 위해 Square Enix의 와다 사장이 직접 ‘Hitman’을 제작한 덴마크의 IO스튜디오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Time Warner가 이미 Eidos Interactive의 지분 20% 정도를 인수한 상태인데다, EA 역시 Eidos Interactive 인수에 공을 들인 만큼 Square Enix의 인수 시도가 쉽게 실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www.eidosinteractive.com](http://www.eidosinteractive.com)

## 英 게임대여업체 Whybuygames, 중고게임업체 Gameshare 인수

### 英 Whybuygames.com, 중고게임 교환 사이트 Gameshare 인수

- ◆ 2005년 설립, 최근 고속성장을 거듭해 오던 온라인 기반 게임타이틀 대여 사이트 Whybuygames.com은 지난 12월 8일 중고게임 타이틀 거래 사이트인 Gameshare를 인수

- Whybuygames.com은 “No return dates, no late fees”를 모토로 월 9.49 파운드만 내면 다양한 게임타이틀을 무제한 대여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국 게임 대여 업계의 선두 주자로 부상 중
-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매주 평균 4%의 가입자 증가율로 올 연말까지 총 40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수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 Gameshare는 영국의 중고 게임 타이틀 및 하드웨어 교환 사이트로서 회원은 거래 건당 1.2 파운드를 지불
  - 회원은 자신의 보유 리스트와 위시 리스트(Wish list)를 만들어 다른 회원들과 거래 의사를 타진한 후 Gameshare로 물품을 보내고 새로운 물품을 우송 받는 방식

### 인수 배경 및 기대 효과

- ◆ Whybuygames는 Gameshare 인수를 통해 고객 저변을 넓히고 시장점유율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중고 게임타이틀 거래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중고 게임 타이틀 및 하드웨어의 물물 교환이 늘 것이라는 판단 아래, 단순 대여 사업에서 한 발 나아가 중고 게임 거래 시장 진출의 필요성 인식
  - 이를 위해 여러 관련 업체 검토 중, 고객 충성도가 비교적 높은 Gameshare에 주목하고 인수 결정
- ◆ Gameshare는 고객 서비스, 시장 노하우,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Whybuygames와의 합병으로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www.whybuygames.co.uk](http://www.whybuygames.co.uk)



**STAT** 유럽 콘솔 HW 판매량 (12월 둘째 주)

Table 유럽 콘솔 HW 판매량 (12.7~12.13) (단위: 대)

순위	HW	주요 5개국	스칸디나비아	기타 유럽	합계
1	DS	648,035	45,386	86,595	780,016
2	Wii	424,458	31,172	62,717	518,347
3	Xbox360	219,822	22,522	36,926	279,270
4	PS3	139,418	10,935	25,001	175,354
5	PSP	118,588	9,646	24,817	153,051
6	PS2	73,537	7,336	24,596	105,469

[출처] VG Chartz

**STAT** 유럽 게임 SW 판매순위 (12월 셋째 주)

Table 유럽 게임 SW 판매 순위 (12.1~12.7, 12.14~12.20)

순위	독일 (12.1~12.7)	스페인 (12.1~12.7)	영국 (12.14~12.20)
1	Grand Theft Auto IV (PC)	Wii Play (Wii)	Mario Kart Wii (Wii)
2	Mario Kart Wii (Wii)	Mario Kart Wii (Wii)	Dr.Kawashima's Brain Training (DS)
3	SingStar Schlager (PS2)	Wii Fit (Wii)	Wii Play (Wii)
4	Mario Kart DS (DS)	Pro Evolution Soccer 2009 (PS2)	Professor LAYTON and the Curious Village (DS)
5	Dr.Kawashima's Brain Training (DS)	Pro Evolution Soccer 2009 (PSP)	Call of Duty: World at War (X360)
6	World of Warcraft: Wrath of the Lich King (PC)	Pro Evolution Soccer 2009 (PS3)	Wii Fit (Wii)
7	Wii Play (Wii)	Need for Speed Undercover (PS3)	FIFA 09 (X360)
8	Need for Speed Undercover (PS2)	Call of Duty: World at War (PS3)	Little Big Planet (PS3)
9	SingStar Abba (PS2)	FIFA 09 (PS2)	Call of Duty: World at War (PS3)
10	Wii Fit (Wii)	Pokemon Ranger 2: Shadows of Almia (DS)	Gears of War 2 (X360)

\*주: 영국 순위는 PC와 콘솔을 막론하여 모든 플랫폼의 판매량을 합산하여 순위를 산출함. 예를 들어 FIFA 09가 PS3, Xbox360으로 모두 출시된 경우, 두 플랫폼의 판매량을 합산하여 순위 산출

[출처] Media Control Gfk International, ChartTrack